

쑤턴푸의 <프라아파이마니>에 그려진 여인 연구*

김 영 애**

I. 서 론

쑤턴푸(1786-1856) 또는 프라쑤트트라위한¹⁾은 태국 제일의 시인이며(Na Nakhorn 2000: 310, Praphaphithayakorn 1986: 1) 태국에서 근대화가 일어나기 바로 전 시대를 기이하게 살다간 인물이다. 라마 1세(1782-1809)때에 태어나서 라마 2세(1809-1824) 때에 왕의 총애를 받은 궁정시인이던 그는 라마 3세(1824-1851) 때에는 왕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미움을 받고 관직에서도 밀려나 온갖 고초를 겪었으며, 그 후 라마 4세 때에 다시 복직하는 등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힘든 삶을 살았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집에서, 절에서, 조각배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도 글을 썼다.

라마 3세 때의 고난은 그로 하여금 궁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세상을 둘러보며 국민들 속에서 궁핍하지만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yoaikim@hufs.ac.kr

1) 본명은 '푸'이며 그가 라마 2세 때에 '프라'급의 관직에 올랐다. 관직명은 '쑤트라위한'으로 왕립도서관 사서장의 직책이다. 그의 생일인 6월 26일을 "쑤턴푸의 날"로 정해 기릴 정도로 현재까지도 존경받는 작가로, 태국인들은 보통 '쑤턴푸'라고 부른다. 이 연구에서도 '쑤턴푸'라고 하겠다.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 바로 그에게 창작의 자유를 갖게 했으며, 바로 니랏(태국식 기행시의 일종)이나 <프라아파이마니>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그는 민중시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Praphaphithayakorn 1986: 1) 비록 자신이나 가족의 끼니를 위해 글을 판 태국 최초의 작가이기도 하지만(National Library of Thailand 2000: 34, 37, Unthaya 2001: 20), 글 잘하고 말 잘하는 데다 술을 좋아하고(Praphaphithayakorn 1986: 259) 호색한 성품이었으므로(Praphaphithayakorn 1986: 85, National Library of Thailand 2000: (8, 23)) 가장 사랑하는 여인 짝으로 부터 버림을 받아 평생 그리움이라는 고통을 겪었다.

<프라아파이마니>는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태국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프라아파이마니>는 태국식으로 94권 64 대목 또는 392,0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Na Nakhorn 2000: 317) 작품으로, 쏘턴푸의 작품 중 가장 방대한 운문작품이며 걸작이다. 1821년경 자신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감옥 속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감옥에서 나온 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1834-35년경에 다시 이어져 라마 3세 말기에 완성되었다. 쏘턴푸 연구자들은 그 내용이나 어휘로 보아 썩쿠편 산에서 출가하는 49권까지는 쏘턴푸 자신이 지었고, 그 이후는 다시 말해 쏘싼권의 어머니인 인어의 꼬리가 수행 끝에 사라져 완전한 인간이 되고 쏘싼권이 랑까 국을 다스리는 데서 끝난 완본부분은 그의 제자가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Na Nakhon 2000: 317)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이 작품은 대체로 49권까지 담고 있다.

태국인들은 이 작품의 주인공 프라아파이마니가 바로 쏘턴푸 자신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Praphaphithayakorn 1986: 85-92) 자신의 일생을,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자신이 처했던 현실과 이에 대한 이상을 그린 작품이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바로 그의 이상형의 여인이라고 한다. 이 글은 태국국립도서관본을 텍스트로 했다.

II. 쑤턴푸의 생애와 작품

1. 시대적 배경

라마 1세는 1782년에 왕도를 방콕으로 정하고 랏따나꼬썬 왕조를 열었다. 400여년이나 지속되어 영원한 번영과 절대로 망하지 않을 왕조라고 구가했던 아유타야 왕조가 미얀마의 침공으로 1767년에 몰락한 후 15년 만의 일이었다. 라마 1세는 수도를 톤부리에서 방콕으로 천도한 후 왕은 국가건설에 매진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얀마와 7차례에 걸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주변의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다시 속방으로 확고히 귀속시켰으며, 베트남 및 중국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대내적으로는 랏따나꼬썬 왕조가 아유타야의 왕조를 이어받은 왕조임을 알리고 민심을 유도해내기 위해 라마 1세는 방콕을 아유타야와 같이 건설하는데 주력했다.

라마 1세는 방콕을 아유타야와 같은 도시로 만드는데 많은 장인과 재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숨쉬있는 장인의 이주를 환영하였고, 왕립무역과 왕족무역을 권장하는 등 외국과의 교역을 권장하였다. 왕과 왕족은 아유타야 시대처럼 중국인을 고용하여 대외무역을 했는데,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많았다.(Nithi 1984: 239, Waraporn 2004: 48-50)

태국에 이주한 중국인들은 종교나 풍습 또는 음식에서 태국인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또 서양인들과 달리 태국인을 야만인이라고 경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태국사회에 어렵지 않게 정착하고 동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관료들과도 우호적으로 지냈으므로 무역상에서 태국인들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 재력을 기반으로 태국인 관료들과 친인척의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Reuangsilp 2002: 18-22, Nithi 1984: 240-242, 273)

태국의 경제정책으로 중국인의 이주가 라마 1세 때는 매년 7,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라마 2세 때에는 서양인들도 점차 방콕에 상주하게 됨으로써 방콕, 특히 짜오프라야 강의 하류는 무역의 중심이 되었다. 이

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비록 수적으로 적긴 했지만 부를 축적한 상인, 주로 중국인 2-3세들과 시대의 변화에 눈을 뜬 태국인 중심의 중산층이 방콕 등 대도시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외국의 신문물과 신학문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섰다. 특히 1833년부터 브래들리(Dr. Dan Beach Bradley) 박사 부부 등 미국 침례교회소속 선교사들이 파견되었는데 이들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교육, 과학, 의술 등 신문물이 태국서민층까지 소개되고 전파되었다. 브래들리 박사는 인쇄기를 도입하여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1843년에 태국어 신문 방콕 리코더(Bangkok Recorder)를 발간하였고(Rong 1977: 116, Wipha 1997: 125) 태국인들이 애호하는 문학작품을 인쇄하였다. 이러한 신문물을 당시 승려였던 몽곳 왕자(1851년에 라마 4세로 즉위) 등 왕자들과 그의 친구들이 공부하였고, 인쇄기도 도입되어 불경이 대량으로 보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신문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근대화=개화=서구화’라는 인식을 가진 젊은이 층이 한층 더 많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마침 무역의 발달로 형성된 부유한 상인층의 중산층과 함께 신문물의 섭렵과 보급에 앞장서서 라마 4세 때에 비롯된 태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 마디로 쏜턴푸는 아유타야 시대의 전통이 강조되고 옛 것이 그대로 답습되었으며, 또한 서구문물의 도입과 활발한 무역의 결과로 태국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하던, 근대시기로 접어들기 직전의 과도기에서 일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왕과 왕족, 그리고 고급 관료만이 지배계층이었던 사회에 비록 소수이기는 해도 무역에 의해 부를 축적한 상인계층이 재력을 바탕으로 지배계층으로 부상하던 시대에 살았다. 특히 상인계층은 재력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부를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신식 교육을 강조하고 자녀들을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거나 외국으로 유학시키는 등 교육에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와 명예를 함께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귀족 출신이 아닌 쏜턴푸는 이러한 신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소재의 작품, 즉 무역의 현장인 바다를 무대로 한

작품 <프라아파이마니>를 저술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 작품이 독자로 부터 큰 호응을 얻기에 이르렀던 것이다.(Nithi 1984: 242, 258-259)

2. 생애와 작품

쑤턴푸는 1786년 6월 26일에 라영의 끌랭 군 끌람 마을에서 태어나 1855년 방콕에서 사망했다. 부모의 이름이나 직업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으나 어머니의 집안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आयुताया 왕국이 망하던 해 쑤턴푸의 조부는 딱션을 따라 남하하여 끌랭에 정착한 평민이었으나 톤부리 왕조가 성립되자 톤부리에 와서 벼슬을 하다 톤부리가 망하자 낙향했다.(Reuangraklikhit 1986: 115) 아버지는 끄람 사람이고 어머니는 어디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쑤턴푸가 2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와 의가 상해 이혼하였다. 이혼 후 아버지는 고향에 돌아가 승려가 되었고 어머니는 그 후 재혼하여 딸 2명을 낳고 왕랑²⁾에 사는 종꾼 공주의 유모가 되었다. 의붓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 쑤턴푸는 왕랑에 거주하였다.

소년시절 그는 왕랑 근처에 있는 치빠카우 사원(현재의 씨쑤다람 사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고 특히 시문에 뛰어났다. 교육을 마친 후 그는 공무원이 되어 한 동안 농림부에서 일했으나 시문에 더 관심을 보여 관직을 그만 두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코봇 이야기>를 비롯하여 <단시>를 지어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재능으로 그는 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과 사랑하게 되었다. 짬도 왕랑에서 요조숙녀로서 왕궁의 법도를 익히며 교육을 받던 여성이다. 왕궁에서 남녀의 사랑이 금기시되던 시절이었으므로 그 사랑이 발각되자 두 사람이 모두 투옥되었으나 얼마 안 있어 왕랑이 사망하자(1806) 방면되었다.

2) 방콕에 왕궁이 셋 있었다. 왕이 사는 왕궁(왕루엥)과 제 2인자가 사는 왕나, 그리고 제3인자가 사는 왕랑이 있었는데, 왕궁은 현재의 왕궁이며, 앞쪽에 왕나가, 왕궁 뒤쪽에 왕랑이 있었다. 왕의 유사시에 왕나와 왕랑이 왕권을 대행하였다.

방면된 후 그는 출가할 생각으로 끌랭으로 갔으나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었다. 병에서 회복된 후 마음을 바꾸어 방콕으로 왔는데, 이때의 여행을 주제로 <니랏 므영끌랭>을 지었다. 방콕에서 그는 왕랑의 5남 빠툼윙 왕자의 시종이 되었고, 짬과도 결혼하였다. 그러나 쏘턴푸의 여성편력과 음주 및 주벽으로(Suwanna 1971: 145-149)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 했다. 결국 시종직을 사임하고 분양극단과 어울려 남쪽에 있는 도시 췌부리에 머물다가 1813년경에 다시 방콕으로 돌아 왔다.

마침내 쏘턴푸는 시재를 인정받아 1815년에 라마 2세의 사서장이 되어 라마 2세가 지은 시에 대한 자문을 했다. 그리고 그의 주벽과 염문에 불만을 품고 친정으로 간 짬과 재결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늘 처가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왕실 사서장으로서 그는 라마 2세를 도와 आयुताया 왕조의 몰락 이후 침체되었던 운문문학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라마끼얀>, <쿤창쿤팬> 그리고 <이나오>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왕의 총애와 경제적 사회적 안정에 힘입어 일가친척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왕이 하사한 집에 살게 된 이 시기에 그는 짬과도 재결합하였으나, 여성편력에 이어 남이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사건이 있자 짬은 영원히 쏘턴푸의 곁을 떠났다. 짬을 잊지 못한 쏘턴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러 처가에 갔으나 용기를 내려고 마시고 간 술 때문에 결국에는 처가 어른을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그는 투옥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프라아파이마니>를 지어 들려주고 그 대가로 목숨을 연명했다. 얼마 후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라마 2세의 친거로 아편 왕자의 교육을 맡았으나(Na Nakhon 2000: 313) 이 시기에 췌싸다버딘 대군(라마 2세의 아들로 후에 라마 3세가 됨)과 <이나오>와 <쌍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화했다. 이 불화로 인해 대군이 왕이 된 후 그는 관직에서 물러났다.(1824) 그 후 수년간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한 왕자나 고급관료들이 그를 후원하거나 비호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생활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남은 길은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 이

후 20여 년 간은 그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다. 그는 라차부라나 사원에서 출가한 후 당시 6살이었던 짚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팻을 데리고 팻부리로 갔고, 님은 자기가 낳은 아들 땀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그는 팻부리, 라차부리, 간짜나부리, 쑤판부리, 핏싸눌록, 방콕 등을 1829년까지 전전하다가 아편 왕자의 동생인 끌랑 왕자와 삐우 왕자에게 2년간 글을 가르치기도 했다. 라마 3세의 아들인 락카나누쿤 왕자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시재를 아껴 후원하고 비호해주던 락카나누쿤 왕자가 1835년에 사망하자 더 이상 승려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환속하였다. 주체할 수 없는 시상을 글로 옮기며 술을 마셨으므로 승려생활에 대하여 다른 승려들의 비난과 반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그러한 비난이 거세지면 왕자가 사원을 옮기도록 도와주어 라차부라나 사원과 문제가 생기면 아룬라차와라람 사원으로, 또 포 사원으로 옮겼고 이 과정에서 나이미, 머라초타이 등의 제자를 두었지만 1834년에 두 번째 아내 님이 사망하자 아들 땀을 데려다 팻과 함께 사미승으로 출가시켰다.

환속한 후의 생활은 문자 그대로 어려움과 궁핍의 연속이었다. 집이 없는 그는 조각배에 팻과 땀을 태우고 이리저리 다니며 행상을 하기도 했고 노래를 지어 팔기도 했으며, 이야기를 팔기도 하면서 연명하였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는 무영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하여 1837년까지 살았으며 너이라는 아들을 두었다. 그러다 1840년에 팻이 승려로 출가하자 같이 출가하였다. 1842년에 다시 환속한 그는 락카나누쿤 왕자의 누님인 압빠썬쑤다텡 공주의 추천으로 노래를 좋아하는 잇싸렛랑싼 대군의 처소에 있게 되었다. 이때 무영과 다시 만나 살면서 그는 <프라아파이마니>를 지어 대군에게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프라아파이마니가 출가하는 대목에서 끝내려 했으나 대군의 요구에 따라 더 길게 늘였다.

1851년에 라마 3세에 이어 몽꿋 왕자가 즉위하자 잇싸렛랑싼 대군이 부왕에 올랐다. 쑤턴푸는 부왕의 천거로 다시 복직하여 지내다가 1855년에 사망하였다. 이때 무영과 같이 살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세 아들 중 땀이 관직에 올라 연가를 지었다는 기록 외에는 그의 자손에 대해

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내용적으로도 방대하고 다양하며 편 수 또한 많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일컫는 9편의 니랏(기행시의 일종)은 <니랏 므엥끌랭>(1807년경), <니랏 프라밧>(1807년경), <니랏 푸카오팅>(1828년경, 니랏 중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는 작품), <니랏 왓짜오화>(1832년경), <니랏 므엥쑤판>(1841년경), <니랏 프라쁘라툼>(1842년경), <니랏 썬뚜부리>(1845-1849), <니랏 프라텐동랑>(썬뚜부리의 작품이 아니라는 설도 있음), <니랏 이나오>, 그리고 <람판필랍>(자서전적 양식)이 있다.

이외에 서사문학 작품인 <프라아파이마니>, <코붓>, <락싸나윙> 등이, 전통무용극본으로 <아파이누랏>, 속담집으로 <싸왓디락싸>, <쑤파 셋썬잉>과 세파로 <쿤창쿤괘> 중 <플라잉암>의 출생 대목과 <프라라 차풍싸와단>, 그리고 뱃놀이용 노래인 <헤르영 까끼>, <헤르영 프라아 파이마니>, <헤르영 코붓> 및 <헤르영 짱라밤> 등이 있다.

Ⅲ. 작품 <프라아파이마니>의 개요

타이족 왕국인 랏따나 왕국의 쑤탓 왕은 프라아파이마니와 씨쑤완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다. 왕은 두 왕자를 바깥 세상에 나가 왕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올 것을 당부했는데, 프라아파이마니는 피리 부는 법을, 씨쑤완은 호신술을 배웠다. 쑤탓 왕은 두 아들이 적극적인 무예가 아닌 것에 분노하여 왕국에서 추방했다. 두 왕자는 여행 끝에 세 명의 브라만을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서로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 프라아파이마니의 신기한 피리소리를 듣고 싶어 해서 피리를 붙였는데, 그 피리소리를 듣고 모두 잠들어 버렸다.

그때 마침 피리소리를 바다의 거신 피쓰어가 듣고 아름다움에 끌려 피리소리가 나는 곳으로 왔다가 프라아파이마니에게 첫눈에 반했다. 피쓰어는 그를 납치하여 바다 속 동굴로 들어가 남편으로 삼고 아들 씬싸뭇을 낳았다. 부모의 장점만을 타고 난 씬싸뭇은 아버지를 동정하여 인

어부와 그 딸의 도움을 받아 피쓰어로부터 아버지와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깨우피싸단 섬에 도착한 프라아파이마니 부자와 인어는 섬의 도사 요키의 도움 받았고 인어는 썬싸뭇의 동생 쏏싸퀸을 낳는다. 한편 씨쑤완과 브라만들은 잠에서 깨어나 형을 찾는 여행을 하다가 롬마짜 왕국(타이족 왕국)에 도착하여 그곳의 공주 및 그 시녀와 각기 결혼한다.

한편 팔룩 왕국(타이족 왕국)의 공주 쑤완말리는 아버지 썬라랏 왕과 바다구경을 하다 풍랑을 만나 간신히 깨우피싸단 섬에 피신했고 그곳에서 프라아파이마니 부자와 만난다. 부자는 썬라랏 왕의 배를 얻어 타고 씨쑤완을 찾는 여행을 떠났게 되었는데 배에서 프라아파이마니와 쑤완말리는 서로 첫눈에 반한다. 썬싸뭇은 쑤완말리의 양자가 되어 아버지와 양어머니 사이에 다리를 놓았지만 이미 약혼자가 있는 쑤완말리는 좀처럼 내색하지 않는다. 이들은 항해 중에 피쓰어를 만나 피쓰어가 일으킨 풍랑으로 썬라랏 왕과 프라아파이마니는 실종되고 썬싸뭇과 쑤완말리는 해적선 쑤랑호에 의해 구출된다. 썬싸뭇은 해적선장과 결투에서 승리하여 배를 점령하고 팔룩 왕국으로 향하던 중 롬마짜 왕국에서 삼촌을 만나 함께 아버지를 찾아 여행을 계속한다. 한편 프라아파이마니는 피쓰어를 피해 간신히 산위로 피신했으나 피쓰어가 애걸하며 따라오자 하는 수 없이 피리를 사용한다. 피쓰어는 결국 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랑과 배반감에 가슴이 터져 죽어 바위가 되고 만다. 썬라랏 왕은 실종하고 만다.

쑤완말리의 약혼자인 랑까 왕국(서양인의 왕국)의 왕자 옷싸렌은 약혼녀가 실종되었다는 전갈을 듣고 항해하다가 프라아파이마니가 피신했 있는 섬에 당도하여 프라아파이마니를 구해 함께 여행하다가 썬싸뭇의 배와 만난다. 옷싸렌은 약혼녀를 돌려주기를 요구했으나 아버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썬싸뭇은 어머니를 내줄 수 없다고 거부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쑤완말리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프라아파이마니에게 반해 있었으므로 이민족인 옷싸렌에게 갈 마음이 없었다. 전쟁에서 옷싸렌은 부상당해서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 사이에 프라아파이마니는 쑤완말리와 결혼하여 팔룩 왕국을 다스렸다. 이 사이 인어가 낳은 쏏싸퀸은 아버지를 찾는 여행 중에 까라웁 왕의 양자가 되어 그 나라 공주인 싸오

와곤 및 왕자 핫싸차이와 계속 여행을 한다.

웃싸렌은 몸을 치료한 후 다시 군대를 일으켜 팔룩 왕국을 공격했으나 왈리의 지략으로 왕과 웃싸렌이 사망한다. 웃싸렌의 여동생 라웡은 랑가 국의 왕으로 추대되어 아버지와 오빠의 복수를 다짐하고 화공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다. 그리고 자신은 선교사로부터 무술은 물론 남자를 홀리는 비법(迷術)을 배워 삼천 명의 여전사를 모집하여 훈련시킨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누구든 그 초상화를 보는 사람은 그 초상화에 반하도록 주술을 걸어서 인근국가로 사신을 보낸다. 누구든 팔룩 왕국을 멸망시킨 사람에게는 나라는 물론 나라의 보물인 라후를 내주겠다는 조건을 건 서신과 함께. 조건은 물론 라웡의 미모에 반한 여러 왕국의 왕자-대체로 타이족이 아닌 이민족 왕국의 왕자-들이 랑가에 모여 팔룩 왕국과 전쟁했으나 마침내 팔룩 왕국이 승리한다. 찌싸뭇과 쏏사컨의 스승이자 1,000년 이상을 수도한 도사 요키의 인과업보와 윤희에 대한 설법과 랑가왕국의 라웡을 비롯한 여전사들이 프리아파이마니를 비롯한 팔룩왕국의 남성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가 평온을 찾은 듯 했으나 프리아파이마니는 쑤알말리와 라웡의 틈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차지 못해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다. 그러자 두 부인도 함께 출가하여 수행하며 남편을 보좌한다.

여기까지가 49권까지의 내용이다. 이러한 줄거리를 가진 이 작품은 종래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서사와 달리 당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사실적인 작품으로서 쏏뎡푸 자신의 삶을 투영하였음은 물론 국내외의 다른 작품, 역사, 사건, 전설,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을 반영하고 동원한 작품이다. 당시 신흥 중산층의 의식과 합리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 주인공들의 능력이나 힘은 이미 신화나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신이한 능력 등의 환상적인 개념에서 한 단계 벗어났다. 비록 작중인물의 대부분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왕자나 공주라 하더라도 그들이 발휘하는 능력은 모두 교육이나 훈련 또는 경험에 의해 얻어진 뛰어난 능력이고, 방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해상시대를 접목한 소설이다.

IV. 쑤턴푸의 작품에 나타난 여인상

소설이나 서사문학 등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작가의 상상력과 의도에 따라 설정된 허구의 인물들이다. 작품이 사실적이면 사실적일수록 작중인물은 현실의 인물과 더 유사해진다. 작가는 이 등장인물들에게 각각 역할을 주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 작품이 바로 쑤턴푸 자신의 자서전격인 프라아파이마니이다. 그래서 등장인물 가운데 프라아파이마니가 바로 쑤턴푸 자신이며, 쑤완말리는 쑤턴푸가 평생을 두고 그리워한 짝으로 해석된다.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은 실제 인물과 맞닿아 있고, 작품 속의 사건도 역시 태국의 역사적 사실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작품 속의 여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작가의 여성관, 이상적인 여성관을 살피는 것과 같다. 이는 다시 태국 사회의 시대적 여인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프라아파이마니>에 등장하는 인물은 인간을 비롯하여 거신이나 인어,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수행자 요키 등이 등장하고,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태국의 고전 서사문학이 늘 그런 것처럼 주인공, 특히 남성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으로 설정된다.(Kriangkraipech 1971: 117) 그런 점에서 볼 때 또 프라아파이마니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수습된다고 보면 이 작품은 프라아파이마니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작중인물의 성격, 특히 남성주인공의 성격은 종래의 남성주인공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 전통적 남성주인공이 정의의 기사로 여주인공이 곤경에 처했을 때 구원해주던 것과는 정반대로 프라아파이마니의 이기적이고 소극적이며 감성적인, 게다가 단견적인 행동으로 인해 주변의 여주인공들이 곤란에 빠진다. 여주인공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해결한다.(Wit,1961: 109-110) 뿐만 아니라 그 남성주인공이 곤경에 처하면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성주인공의 도움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호소하고 비통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실제 역할이나 비중으로 볼 때는 주인공이라 할 만한 인물이 프라아파이마니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주인공

인 쑤완말리와 라웡완라(이하 라웡)의 역할은 종전의 서사문학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품의 전반에 걸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작품 안에서의 역할이 남성주인공과 대등하거나 때로는 앞선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의 역할을 할 경우 남성의 모습으로 변신을 했으나 이 작품에서는 아무런 변신이 없이 당당한 여성의 모습으로 전투에 임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또 지혜를 발휘하여 나라를 구하고 위험에 빠진 남편을 도와 준다.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 인물은 바다의 거신이자 썬싸뭇의 어머니 피쓰어, 쏏싸켄의 어머니 인어 낭응억, 둘도 없는 팔룩 왕국의 추녀 왈리, 팔룩 왕국의 공주이자 프라아파이마니의 아내 쑤완말리, 랑까 왕국의 공주로 후에 프라아파이마니의 아내가 된 라웡, 씨쑤완의 부인이자 롬마짜 왕국의 공주인 께싸라, 까라웡 왕국의 공주이자 후에 쏏싸켄의 아내가 된 싸오와콘 등이 대표적이다.

태국의 전통적인 개념의 요조숙녀를 그대로 그려놓은 께싸라, 전통적으로 외모를 제일 중시하는 사회에서 과감하게 외모보다는 마음과 능력을 들고 나온 왈리, 신과 인어라는 신분으로 목숨을 걸고 인간 프라아파이마니를 사랑한 해신 피쓰어와 인어 낭응억, 그리고 공주라는 고귀한 신분이지만 남성을 능가하고 때로는 남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외적으로 갖춘 여성 쑤완말리, 라웡 그리고 싸오와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쑤완말리와 싸오와콘

팔룩왕국의 공주로 딸 씨이쑤완과 쥘쑤다의 어머니이다. 프라아파이마니에게 첫눈에 반했으나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속이 상해 거부하던 차에 왈리의 기지로 프라아파이마니와 결혼해서 그의 왕비가 된 여인이다. 쑤완말리의 역할은 프라아파이마니와의 결혼을 전후하여 두 성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강한 여성으로서 프라아파이마니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라

웡이 등장하고 줄거리가 라웡과 프라아파이마니의 이야기-전쟁과 사랑-를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그 역할이 다소 퇴색하는 듯해도 라웡에 대해 왕비로서의 역할을 한다.

쑤완말리는 성장하며 무예와 전술을 익힌 강한 의지력의 여성이다. 그녀는 여성이지만 종래의 여성과 달리 필요한 경우에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변복을 하고 마을로 나가 백성들의 애환을 둘러볼 줄 아는 여성, 정치에 대한 식견이 있는 여성이다.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을 지휘할 줄 아는 여성으로 활에 맞아 부상을 당했어도 자기 부대의 사기를 생각하여 싸바이(태국식 여성 상의)로 가려 자신의 부상을 감추며 의연하게 전쟁을 승리해내는 용감하고 인내심 있는 여성이다.(Vol.1: 484) 무남독녀였던 그녀는 어려서부터 무술을 익혔고 전술학도 공부했다. 그러므로 남편과 찌사뭇, 쏏사뭇이 라웡의 주술에 걸려 라웡의 진지에 들어가 버리자 팔룩왕국의 섭정이 되어 남편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싸오와쿤과 함께 군대를 지휘하여 라웡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담대하고 용감한 여성이다.

쑤완말리는 자존심이 강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마는 결단력 있는 여성이다. 그녀가 프라아파이마니를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녀의 그러한 성격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는 꿈속에서 바다 한 가운데서 보석을 얻는 꿈을 꾸고 그 보석을 잊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기 때문이다.(Vol.1: 160-161) 아버지는 그러한 딸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바다여행을 계획했고 거기서 풍랑을 만나 아버지는 마침내 행방불명이 되었으나 그녀는 프라아파이마니 부자와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씩씩하고 서글서글하며 말슴씨도 좋은 찌사뭇을 양자로 삼았으나 프라아파이마니에 대한 마음은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이 프라아파이마니에게 있음을 깨달은 후부터는 옷싸렌과의 만남을 거부한다. 그녀는 이미 부모에 의해 랑가 왕국의 옷싸렌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이종족인 옷싸렌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프라아파이마니를 택한 것이다. 부모들의 정략적인 약속보다는 사랑을 택한 그녀이다. 약혼자의 배신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함은 물론 분노와 고통에 싸인 옷

싸렌은 약혼자를 무력으로 찾으려 함으로써 전쟁도 불사한다.

결국 프라아파이마니(팔룩왕국)와 옷싸렌(랑까왕국)이 그녀를 두고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머니를 보낼 수 없다”(Vol.1: 300)며 프라아파이마니와 결혼하기를 바라는 썬싸뭇의 편을 든다. 그러나 이때 프라아파이마니가 옷싸렌과의 정리 때문에 사랑보다 의리를 중시하며 중도적 입장에 서서 옷싸렌의 편을 드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이자 그녀는 썬싸뭇에게 “... 이 엄마는 여성이기는 해도 전술에 적지 않게 능하다”(Vol.1: 300)라며 썬싸뭇과 함께 옷싸렌에게 대항할 의사를 명확히 했고 썬싸뭇을 도와 군대를 이끌고 옷싸렌과 전쟁한다. 이때 그녀는 썬싸뭇은 물론 프라아파이마니에게도 자기와의 인연이 끝났음을 단호하게 말한다.

공연히 성나게 만드는구나
이승에서 반려자 되려했더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네(썬싸뭇) 아버지와는 안 되겠다
(Vol.1: 307)³⁾

저는 결심했어요, 이승에서
혼자서 아들(썬싸뭇)과 살겠어요

겉쟁이 남편을 원치 않아요
제 진심이고 진실이에요. (vol.1:
318)

그러나 어머니가 팔룩왕국을 프라아파이마니에게 말김에 따라 그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녀는 자신에 대한 프라아파이마니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와의 결혼을 거부하는 방편으로 아버지의 명복을 핑계로 출가한다.

썬완말리는 용감하고 담대한 여성이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질투심으로 표현하는 여성이다. 라웁은 썬완말리의 남편은 옷싸렌이므로 썬완말리가 프라아파이마니와 결혼한 사실은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라 피쓰어의 남편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썬완말리의 질투심을 두고 프

3) 이 연구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현재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 되지 않은 관계로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 이 논문이 발표된 후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면 논문을 수정할 것임.

라아콰이마니에게 “호랑이처럼 사납게 질투하는 왕비가 자기(라웡) 몸을 찢어서 돼지고기 먹듯 먹을 거”(Vol.2: 136)라고 표현한다.

왈리도 쑤완말리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하여 그녀를 환속시킬 수 있었다. 7일 후에 왕의 결혼식을 준비시킨 후 그녀는 시숙 씨쑤완과 논의하여 7일 후에 자신이 왕과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을 쑤완말리의 어머니에게 던지시 알리도록 했다. 쑤완말리의 어머니는 수도 중인 딸에게 신세한탄을 하며 못 생긴 왈리도 왕과 결혼하는데 잘 생긴 딸이 왜 결혼을 못 하여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리느냐며 딸의 시기심에 불을 질렀다. 결국 쑤완말리는 그날로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조상과 백성에 대한 배려라는 구실로 환속을 결심하였다. 왈리는 환속한 그녀를 왕과 혼인시키는데 성공했다.

랑까왕국에서 서양인의 복장으로 라웡과 즐기고 있는 남편을 본 쑤완말리는 눈물을 흘리며 분해한다. “남녀의 관계는 화약 옆에 있는 불같이 쉽게 싸우거나 불붙을 수 있”(Vol.1: 502)기 때문이었다. 쑤완말리의 질투심, 다시 말해 남편을 다른 여성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는 자기 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싸오와콘 및 아룬랏싸미와 맞닿아 있다.

싸오와콘은 어머니를 하직하고 아버지를 찾아 떠난 쑤싸컨이 도착한 왕국 가라웡 왕국의 공주로 용감무쌍한 여성으로 이 작품의 어느 여성보다 남성적이다. 어려서부터 무술을 좋아하고 모험을 즐겼고 쑤싸컨으로부터도 무술을 익혔다. 그래서 다른 여성보다 무술에서는 제일 뛰어나고 남자동생인 핫싸차이보다도 능하다. 어려서 식이나비 떼의 공격을 받은 그녀와 그녀의 동생 핫싸차이를 도와준 인연으로 쑤싸컨은 그녀와 만나게 되었고 죽인 나비대장의 눈(깨우따 피쓰어)을 수호보석으로 얻었다. 그가 아버지를 찾는 여행을 떠나려고 하자 13세인 그녀는 동생과 함께 그를 따라 나서는 단호한 결단력을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남성에 대한 사랑은 쑤완말리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 쑤싸컨이 라웡의 부하 쏘라리완에 의해 미혹되어 진지로 들어가 버리자 그녀는 단신으로 랑까 백성의 복장으로 변복하고 적진에 들어가 축제

에 들떠 있는 적진을 쑥밭으로 만든 여성이다. 그녀는 비록 후에 자신이 쑥밭과 결혼을 해도 자신이 후처로 전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라웡 진지에 들어가 유파파와 지내고 있는 썬쌌을 사랑하는 아룬랏쌌미와 함께 “이승에서 약속하건대 결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Vol.1:900)라는 피를 건 약속을 한다. 이 둘은 약속을 지켜 쑥밭 및 썬쌌과 결혼을 거부한다. 아룬랏쌌미는 아들 썬쌌을 도와 혼례를 성사시켰으나 그녀는 분이 풀릴 때까지 동침을 거부한다. 한편 싸오와콘은 쑥밭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부모님과 사랑하는 쑥밭에게 편지를 남기고 몰래 수하 100여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항해를 떠나버림으로써 쑥밭의 행위에 항의했다. 싸오와콘을 찾아 나선 쑥밭은 중도에서 여성을 매료시킬 수 있는 비법을 배운다. 그리고 싸오와콘을 찾아 함께 결혼하여 까라웡 왕국으로 돌아온다.

2. 라웡

서양인의 나라인 랑카왕국의 공주로 이 작품의 어느 여인보다도 다른 독특한 캐릭터를 지녔으며 외모도 아름답다. 썬툰푸의 작품에서 보기 드물게 자신의 아름다운 미모를 미끼로 전력을 보강하는 등 정치에 이용할 줄 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무술과 전법 등 모든 것을 배우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의지의 여성으로, 사랑에 대한 인식이 수완말리와는 다르다. 그녀는 사랑을 독점하려는 여성을 투기라고 비난하고, 자신은 개인적 사랑과 정치적 목적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대범한 여성이다.

아버지와 오빠를 팔룩왕국과의 전쟁에서 잃은 후 그 원인이 오빠를 배반하고 프라아파이마니와 결혼한 수완말리에게 있다고 보고 복수를 꿈꾼다. 아버지와 오빠의 사망이후 군신에 의해 여왕으로 추대된 그녀는 “내 비록 이제 막 16세가 된 소녀여서 전쟁에 대해서는 무지한 여성이지만 팔룩왕국에 대한 끝없는 복수를 위해 죽음을 불사한 전쟁을 하리”(vol.1: 425)라는 각오로 전쟁을 결심한다.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어 팔룩왕국을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 인근국가로 보내 자신을 걸고 복수를 다짐하게 하는 미인계를 이용한다. 갠지스 강 중부에 있는 라만 왕국의 라만왕은 이러한 미인계에 현혹되어 죽음에 이르렀다. 라만왕에게 간 서신의 한 부분이다.

현재 적국 팔룩왕국은	쌍혼왕국의 백성을 괴롭히나
군대를 지휘할 남성이 없으며	전쟁을 수행하여 물리칠 수 없어
이 편지로 모험을 하네	오빠의 나라와 같은 여러 왕들에게
누구든 아버지를 대신하여	적을 산산조각 내어 복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보물 라후를 양도할 것이며	이 나라의 왕통을 잇게 하겠네
	(vol.1: 433)

서신과 함께 보낸 라웡의 초상화에는 라웡의 강한 염원이 주술의 형태로 들어있어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훼손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막대기로 때리면 비명소리가 나는 그런 그림이고 필요한 사람에게서는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 목적을 달성하고 마는 그런 그림이다. 라만과의 전투에서 주워온 그 초상화를 본 프라아파이마니 자신도 한 눈에 반해 그림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식음을 전폐할 정도가 되었다. 쉰완 말리의 어머니가 그 그림을 빼앗아 강에 버렸으나 어느 새 프라아파이마니의 방에 와 있는 주술적인 그림이다.

이 그림에 걸린 주술은 브라만 고승 요키로부터 주술퇴치법을 배운 쫓싸권이 해결하여 아버지가 정신이 들게 했으나 전투에서 라웡과 만난 프라아파이마니는 라웡의 주술이 아니라 미모에 끌려 자발적으로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진지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왕으로 추대된 후 자신의 취약점, 즉 무예와 전술을 스스로 익히기로 결심하고 배워서 문무를 겸비한 통치자가 된다. 그녀는 자문인 서양 선교사 삐뽀로부터 무예와 전술, 그리고 전법을 공부하여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고 나라를 다스림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했다.

..... 공주는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
 나라의 기강인 경전을 비롯하여 바다와 공중에 이르는 모든 것을
 배웠다. (Vol.1:430)

왕으로서의 일반적인 자질을 갖춘 것 외에 그녀는 자신의 자문으로 선택한 서양인 선교사 삐뽀의 미약과 함께 여성만이 향유할 수 있는 매력과 묘술을 스스로 익히고 3,000여명의 아름다운 여성을 선발하여 무술을 익히게 한 후 미술(迷術)로 무장한 여전사 미인군단을 만들어 프리아파이마니의 군대와 대적한다. 삐뽀는 사망한 인간의 눈동자를 갈아서 만든 미약, 누구든 그 약을 바른 여성과 눈을 마주치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미약을 여전사단에게 주었다. 삐뽀 미약의 효력은 다음처럼 나타나 있다.

.....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술책에서 골
 라내어
 랑가 왕국의 딸들에게, 스승은 남성을 유혹하는 비법을 가르치네
 인간의 눈동자 가루약과 향을 섞어서 남성은 얼굴만 마주치면 사랑에
 빠지네
 서로 몸이 닿던지 가까이 다가가면 그 남성은 사랑으로 죽기도 하네
 (vol.1: 429)

이러한 미술로 라웡의 여전사, 유파파까, 쏘리리완, 그리고 람파싸리는 프리아파이마니의 아들들과 동생, 즉 썬짜뭇, 쏫짜퀸, 씨쭈완을 자신의 부대로 유혹하여 같이 생활하며 전의를 잃게 만들으로써 팔룩왕국의 전력을 약화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듯했다.

비록 라웡이 복수하기 위해 미인계는 사용했지만 그녀의 도덕성이나 윤리 또한 바른 강한 여성이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를 위해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모아 전쟁을 했지만 프리아파이마니를 사랑하게 된 이후부터는 전쟁의 피해를 인식하고 전쟁을 거부한다. 선교사 삐뽀는 여성의 심리를 알기에 라웡은 물론 여전사들에게 남성을 사랑하지 말도록 당부한다. 누구든 한 남성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가르친 미술은 소용이 없게 된다고 경고한다.

라웡은 프라아파이마니의 미녀를 탐하는 성격을 이용해 자신의 진지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지만 그녀 자신은 프라아파이마니에게 첫눈에 반하고 만다. 그래도 처음에는 선뜻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지 않고 자제한다.

처음 전쟁에서 그를 본 후 내 가슴은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위용을
보고 설레네
그에게 향한 마음을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어 밤마다 잠 못 이루네
(vol.1: 610)

복수만을 생각하고 그에게 향하는 마음을 겉으로는 자제하고 강한 척 하지만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꿈에 만난 프라아파이마니를 못 잊는 그녀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내심 프라아파이마니 외는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그녀이다. 뿐만 아니라 프라아파이마니 사이에서 얻은 아들 망칼라가 부모의 말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켜 명분도 없이 일가친척은 물론 백성을 고난에 빠뜨리자 그녀는 두 세 번의 타이름으로도 말을 듣지 않는 아들과도 전쟁을 하여 무력으로 저지하는 강한 어머니이다.

3. 왈리

쑤턴푸의 작품에서 왈리의 등장은 파격적이다. 쑤턴푸가 여성의 외모 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 지혜를 높이 평가함이 드러나 있으나 종래의 태국작품과 달리 왈리는 죽을 때까지 그 본디 모습을 유지한다. 기존의 작품은 어느 시점에서 여성주인공은 그 추한 허물을 벗고 미인으로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팔룩왕국의 몰락한 브라만집안의 여성으로 다른 등장인물과 달리 34세의 추녀이다. 작품에 묘사된 그녀의 모습은 “피부가 시커멓고 남성이 한 번 보면 다시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인물이 없다. 얼굴은 주름살과 상처투성이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논 한편에서 할머니와 사는 가난한

처녀이다. 아주 오래된 브라만 가문의 여식으로 여러 가지 학문에 통달했다. 경문에도 능하고 공부도 많이 했다. 일기도 볼 줄 알고 책은 다 외우고 난 다음에 태워버렸다. 동네사람들은 그녀를 아주 영험한 점쟁이로 인정하여 존경했으며 점을 봐주고 가져다주는 대가로 연명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해 지체 있는 잘 생긴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Vol.1: 344)으므로 팔락왕국의 새 왕이 미남이라는 소문과 마침 유능한 군사를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후궁이 되려는 뜻을 가지고 주위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지원했다.

태국의 서사문학에서는 여성의 외형적 아름다움이 중시되어 모티프가 되지만 왈리는 예외이다. 고도의 지식을 갖춘 그녀는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고 영리하기에 당당하고 도도하다. 상대편 마음도 읽어내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요리할 줄도 아는 여성이다. 왕을 만난 자리에서 후궁이 되기를 청하는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인이 인물 없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밝은 지식이	아주 찬란히 빛나는 보석과 같으니
왕이시어 물리치지 마시기를	발밑에 엎드려 소망합니다
소인처럼 지식이 있는 여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와서 엎드려 청하오니	거두어 베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가진 다른 인사들도	전하에게 와서 의지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미모만 가까이 두시고	지식을 멀리 하시면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훌륭한 인사들도 멀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시어	은 세상을 밝히소서
외모만 아름다운 여성은	침실에서만 즐겁습니다.(Vol.1: 349)

이런 말을 들은 프라아파이마니는 왈리가 두 번 보기 싫을 정도로 검고 못 생겼지만 지혜롭고 속에 든 지식도 적지 않음을 느껴 선뜻 후궁으로 받아들였다. 왕이 지식인을 취한다는 소문에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고 충성을 바쳤다. 왈리는 겉은 가시가 돋치고 못 생겨서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속살은 향기롭고 맛이 좋은 투리안과 같은 여성이다.

왈리의 지혜는 끝이 없어 프라아파이마니를 쭈완말리와 결혼시키는데 성공했고, 랑카왕국과의 전쟁에서도 기지를 발휘하여 승리로 이끌었다.

포로로 잡혀 온 옷싸렌에 대해 프라아파이마니가 과거에 자기를 살려준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구멍의 뜻을 비치자 왈리는 왕의 결단을 촉구하며 말한다.

뱀의 등을 쳐서 등뼈를 분지르는 것은	후환을 없애기 위한 것이요
큰 악어는 물에만 가면 힘이 솟고	감혔던 호랑이도 숲속에 가면 다시 포악해지니
잡은 장군(옷싸렌)을 죽이지 않으면	장래 수습하기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하매(vol.1: 415)

결국 성질이 불같으며 조급하고 여성 심리를 잘 모르는 옷싸렌은 프라아파이마니와의 사랑전쟁에서도 실패했고, 쑤완말리를 찾으려는 팔륙 왕국과의 무모한 전쟁에도 패했다. 자신의 고집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활에 맞아 피신하였으나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중태인데 다가 자신은 두 번 보기도 싫게 못 생긴, 그것도 여성에 의해 포로로 잡힌 사실로만 도울화가 치밀고 참을 수 없는 치욕인데 자신의 목숨을 두고 면전에서 벌이는 왕과 왈리의 대화는 옷싸렌의 자존심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 왈리의 빈정댐에 분노와 수치심이 범벅이 된 옷싸렌은 마침내 심장이 터져 죽고 만다. 왈리는 손 가닥 하나 까딱 않고 세치의 혀 놀림으로 승리했으나 옷싸렌의 원혼이 왈리에게 씌여 마침내 왈리도 죽는다. 그녀는 자기를 알아주는 프라아파이마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인이다.

4. 피쓰어와 낭응억 그리고 깨싸라

피쓰어는 바다의 여신이며 썬싸뭇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성질이 포악하고 거대한 괴물로 나타나지만 변신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프라아파이마니 앞에서는 미모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여성으로 나타난다. 피쓰어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바다의 신이므로 프라아파이마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들까지 낳았으나 그의 마음만은 어쩔 수 없

다. 자신이 낳은 썬싸뭇의 마음도 어쩔 수 없어 결국은 사랑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으로 남편의 피리소리에 죽어 돌이 되고 만다.

프라아파이마니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섬으로 온 그녀는 첫눈에 “세상에 둘도 없이 수려한”(Vol.1: 13) 프라아파이마니에게 반해 힘으로 그를 수중 동굴로 납치하여 남편으로 삼았다. 프라아파이마니가 핑계를 대며 피해도 그녀는 적극적으로 다가와 결국 동정을 바치고 말았다. 대신 그녀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을 잡아먹지 않겠다는 것과 만일 그 약속을 어기면 하늘의 벌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녀의 그러한 사랑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다. 정신 나간 여인처럼 바다를 뒤지며 남편을 찾아다닌다. “나의 잘 생긴 그대여, 어찌 나를 두려워하고 피하는가? 나는 일부러 그대를 찾아 따르는데, 어서 내게로 오시오소서”(vol.1: 201)라는 마음으로 일관한다.

마침내 썬완말리와 썬싸뭇, 그리고 프라아파이마니가 탄 배를 만나 피쓰어가 풍랑을 일으켜 배를 난파시켰고, 피쓰어를 피해 도망가던 프라아파이마니는 더 오를 수 없는 높은 절벽에 가로막혀 더 도망할 수 없자, 또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쓰어의 손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피리를 불기로 결심한다. 결국 피쓰어는 남편의 피리소리를 듣고 심장이 터져 죽지만 한 마디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남편을 도망시킨 아들을 원망하고 또 피쓰어인 자신의 처지만을 한탄하며 내생에서 만나 해로하기를 기구할 뿐이다. 그리고 이승에서 못다 한 그녀의 한은 남편이 탄 옷싸렌의 배를 떠나지 못하게 묶어 둔다. 프라아파이마니는 돌이 된 피쓰어의 주검에게 다가가 “... 우리 두 사람은 한 때 부부가 되었으나 지금은 당신이 명을 다했어. 나도 당신 곁을 떠나야하니 야속히 생각지 말고 나를 편하게 해 주오. 나는 9년간 당신과 살면서 어려웠소. 이번에는 나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오... 나는 우리 둘의 아들 썬싸뭇을 만나러 가오”(vol.1: 272)라며 피쓰어의 영혼을 위로해 준다. 남편의 다정한 말 한 마디에 쌓이고 쌓인 한이 단 번에 풀리는 그녀다.

낭웅역은 인어로 썬싸뭇의 어머니이다. 프라아파이마니를 피쓰어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도와서 깨우피싸단까지 피신시키는데 성공한 인어가

족의 딸이다. 부모 인어는 프라아파이마니를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성이 난 피쓰어의 밥이 되어 버렸다. 인간과 인어가 함께 살 수 없다는 입장을 알고 있는 그녀는 “모든 수생에게는 성이 있으니 … 모두 서로의 마음 교접이 중요하다”(Vol.1: 158-159)라는 프라아파이마니의 위로와 요구에 못 이겨 정을 통하고 임신을 했다. 그러나 인어라는 입장 때문에 그녀는 동생을 찾아 떠나는 남편을 잡지 못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것 또한 잡지 못한다. 그녀는 피쓰어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드러운 여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출산한 아들 쏏싸켄을 요키에게 맡겨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아버지를 찾아가 보필하도록 한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남편과 아들의 행복을 존중하는 인륜을 알고 순종하는 여자이다.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나는 3살짜리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타이르는 그녀다.

너는 아버지를 찾아 떠나서 돌아오지 말라	아버지와 함께 있어라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이 어미는 죽어도 슬프지 않다.
만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죽지 말고 내가 이른 대로 오너라
	(Vol.1: 378)

깨싸라는 피쓰어나 낭응억과 달리 인간이다. 그녀는 기화요초가 만발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롬마짜 왕국의 공주이자 씨쑤완의 아내이고 아룬랏싸미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형을 찾는 여행에서 자기 왕국에 도착한 씨쑤완에게 반해 결혼한다. 그러나 씨쑤완이 형을 찾아 계속 여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자 따라가고 싶지만 혹시 남편에게 폐가 될까 봐 따라나서지 못하고 참는다. “남편을 성실히 잘 섬기고”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한다.

그녀는 전통적인 여성관 즉 여성은 “코끼리의 뒷다리와 같은” 여성으로 전편에서 한 번도 남편을 성나게 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음은 물론 질투도 하지 않는다. 남편이 라웡의 여전사에게 미혹되어 그 진지로 들어가 생활해도 질투보다는 그녀들이 남편의 수발을 잘 들어주는지에 대

한 염려가 더 큰 그녀이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신의 정조를 지키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편을 편하고 행복하도록 보필하고 섬기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는 현모양처의 전형이다.

V. 작품에 구현된 이상적 여인상과 여성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쑨완말리, 라웡, 그리고 싸오와콘을 축으로 하는 작중여성인물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갖춘 것 이외에(왈리 예외)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고 성실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상 외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종래 여성상과 달리 인내력과 결단력이 있는 강한 의지의 여성, 다시 말해 투사적인 남성의 성격과 여성적인 성격을 고루 갖춘 인물로, 이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남성과 대등하다는 점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우월성을 구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쑨완말리와 라웡은 프라아파이마니의 아내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하여 남편을 잘 섬겼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성향도 소유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남성을 자신의 매력으로 유도하여 또는 남성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대로 부리기까지 한다. 남성의 매력에 유혹당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여성은 피쓰여가 유일하다.

둘째, 종래의 여성과 달리 무기를 다룰 줄 알며 전투와 전술에 능하고 정치에도 수완을 보이는 여성을 구현함으로써 종래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여인상을 창출했다. 여성에게도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남성적이라고 치부하고 여성에게는 금기시 하였던 덕목을 드러내어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시켰다.

셋째, 남성주인공을 능가하거나 앞장서서 유도하는 여성상이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명하게 남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작품의 제목을 <쑨완나말리>나 <라웡>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건의 발단과 결말을 여성인물들이 만들어내고 주도하고 있다. 쑤완말리, 라웡, 싸오와콘은 전술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남성을 능가하는 숨씨를 보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완전무결한 여성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태국 역사에도 없는 최초의 여왕 라웡을 그려내었다.

넷째, 모두 한 남성만을 사랑하는 여성으로 등장하나 남성의 외도에 대해서는 쑤완말리와 싸오와콘, 그리고 아룬랏싸미 3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려하지만 다른 등장인물들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도리어 3사람의 여성을 질투심이 강하다고 비난한다. 이 사실은 새로운 여성상을 그려내고는 있지만 의식면에서 작가는 아직도 전통적인 현모양처형의 순종적인 여성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전의 서사문학에서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열등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거나 종속된 존재였다. 동서양 모두가 여성은 전통적으로 남성(아버지, 남편, 아들)의 말에 따르고 복종하도록 교육되어졌으므로 시련에 봉착한 여성들이 그 시련이 남편의 잘못이나 무지 또는 오해에서 발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려하지 않고 순응하거나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결백이나 무고함을 나타냈고, 그러한 시련이 아들이나 다른 남성구원자의 도움으로 해결되어 해피엔딩의 결말을 냈던 것에 비하면 쑤턴푸는 이 작품에서 매우 다른 성격의 인물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주변 국가는 물론 서양의 여러 나라와 다시 교역이 열림에 따라 외국인인 태국에 상주함은 물론 태국인도 상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종전의 직업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무역을 통해 외국 의 문화와 문물이 유입되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일었던 것이다. 종래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되던 가치관에서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남성의 역량으로만 간주했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와 동등해지고 있음을 작가는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

한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 외모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새 사회를 시현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기 다른 신분과 입장의 여성을 그려냄으로써 작가는 자신이 바라는 여성상, 다시 말해 외형적으로도 아름답고 내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을 반드시 해내는 책임감 있는 여성을 묘사해 냈다.

작가는 방콕 왕궁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왕실의 여성은 물론 저자거리의 여성을 만나 생활하였다. 또한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던 시기에 바다에 접한 방콕에서 바다를 동경하였다. 광대무변한 바다와 여행을 무대로 전개되는 새로운 세상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지도자의 자격으로 남성의 이미지만을 인정하거나 여성의 존재는 거부했던 낡은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VI. 결 론

쑤턴푸는 태국의 랏따나꼬씬 왕조가 다시 문호를 개방하면서 외국과 활발한 관계를 가지던 시기에 짜오프라야 강과 연해 있는 왕궁에서 성장하였고 교육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왕족이 아니고 평민이었다. 그러나 평민이라는 점이, 또한 라마 3세 때 관직에서 밀려나 행상을 하며 어렵게 생활한 점이 이 방대한 작품을 완성시킨 힘이 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역선들과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비록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초기단계였지만 종래까지는 천시하던 상업이 인간의 삶은 물론 사회적 신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신흥 중산층의 생활을 보고 몸소 느꼈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 이 작품은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바다를 무대로 한 태국 최초의 문학작품이다. 기존의 작품보다 내용이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숫자가 다양하고 방대한 작품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의 구성상 주요 주제가 집중되지 못하고 수 없이 많은 소주제들이 서로 연결을 지으며 구성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쑤턴푸는 해상무역과 함께 진행된 시대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구현하였다. 왕은 신적인 존재라는 맹목적인 가치관에서 왕도 인간이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표출했으며, 특히 시대에 맞는 이성적인 여성상을 창출해냈다. 기존의 현모양처, 다시 말해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에 순종하고 남성을 보필하며 남편의 외도에 너그러운 여성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넘치는 여성상을 능동적으로 그려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쑤턴푸의 이 작품은 아직 일부일처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가 전통적인 서사문학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여성을 하나의 훌륭한 인격체로 본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비록 빼빼의 주술이나 요키의 주술 등이 나오지만 종래의 서사문학에 나오는 주술과는 거리가 있다. 인간의 눈알을 이용해 만든다는 모티프와 그런 미약을 사용한 여성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눈 맞춤이 있어야 미술에 빠지는 점과 여성이 그 남성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약은 효능을 잃게 된다는 점 등에서 매우 심리적이고 합리적(과학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평할 때 이 작품은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러면서도 신홍 중산층의 삶과 기대에 부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낭만주의 경향의 문학에서 사실적인 경향의 문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쑤턴푸, 여성상, 서사문학, 고전소설

참고문헌

- Chai Reuangchai. 2002. History of Thailand(Society) 1809-1910(in thai). Bangkok: Sinlapabannakhan
- Chonlada Reuangraklikhit. 1986. The Life and Works of Sunthorn Phu(in thai).
Bangkok: Chareonphol
- John Crawford. 1967. Journal of an Embassy to the Court of Siam and Cochin China.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Kusuma Raksamanee. 2004. Wannasarnwijai(비평문학). Bangkok: Maekhamphang
- National Library of Thailand. 1970. Phra Aphaimanee vol.1(in thai).
Bangkok: Phraephitaya
- National Library of Thailand. 1970. Phra Aphaimanee vol.2(in thai).
Bangkok: Phraephitaya
- National Library of Thailand. 1970. Phra Aphaimanee vol.3(in thai).
Bangkok: Phraephitaya
- Pleuang Na Nakhorn. 2000. History of thai Literature(in thai).
Bangkok: Thai Watana Panich
- Prachak Praphaphithayakorn. 1986. Phra Aphaimanee, Bangkok: Odion Store
- Premseri. 2000. Phra Aphaimanee(Samnuan Roikaeo). Bangkok: Ruamsarn
- Rong Syamananda. 1977. A History of Thailand. Bangkok: Thai Watana Panich
- Sophi Unthaya. 2001. An Analysis of the Dialogues in thai Literature(in thai). Mahasarakham: Mahasarakham University Press

- Suwanna Kriangkraipecth. 1971. Phra Aphaimanee: A study in Literary Critics(in thai). Bangkok: จุฬาลงกรณ์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Waraporn Chiwachaisak. 2004. The State's Economic Policy in the Reign of King Rama III(in thai).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Wipha Kongkanan. 1997. Genesis of Novels of Thailand(in thai). Bangkok: Dokya
- Wit Siwasriyanon. 1961. Literature and Critics(in thai). Bangkok: PEN of Thailand
- Yurachad Boonsanit. 1995. Wannawijarn. Bangkok: Srinakharinwirot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woman of Sunthorn Phu's 〈Phra Aphaimanee〉

Kim Young Ai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ra Aphaimanee〉 is known as a masterpiece of the Thai Poet Sunthorn Phu. Sunthorn Phu, though he was a commoner, has grown up in a Royal palace in coast of the river Chaophraya while Rattanakosin dynasty of Thailand was having active relationship with foreign countries. While he was young, he used to watch persons come through the Chaophraya river to have trade relations. Also, he watched new middle class people who made overseas trade and use their wealth as a stepping stone for their higher social status. This fact not only change Thai's values of contempt commercial business, but also made circumstances for having realistic thoughts and rationality. In this piece of work, Sunthorn Phu reflected the changes of the society and consciousness made with overseas trade. From the thought of king existing as a god, he showed his actual and logical thought of mentioning the king also as a human being. He especially made a wise women feature of the period as well. He mentioned a new feature of women which was going a step further of active character with self-confidence. As a matter of fact,

although Sunthorn Phu's work is not yet asserting monogamy and is still following several details of traditional historic literature, it is highly appraised for emphasizing the independence of women and allowing women as one whole respectable human beings. This piece of work is a device for classical literature to go a step more to modern literature. Also, it is a work to conform to newly rising middle class people's life and their expectation(dream). Therefore, <Phra Aphaimanee> can be evaluated as a stepping stone from romanticism to a trend of realistic literature.

Key words : Sunthorn Phu, woman image, narrative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